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2025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속속 이어지고, 지지율 차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현직의 경우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에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다.

민선8기 3년의 치적을 내세우고 마지막 4년차를 준비하는 단체장들의 각오가 남다르게 들린다.

무엇보다 차기 광주시장이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정 안팎에서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어수선한 사정이 한몫을 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 강기정 시장은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현안사업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시민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여론을 다독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사례.

대통령 직속 공공화 이전 TF 관련 공모방식 깨낸 무안군의 판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매칭국비 삭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2천여대 손해배상 관련 중재 논란.

대선공약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하남·본촌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초과

슬기로운 4년차를 바라며

검출 방지 책임 공방.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일정 지연 개통 시기 줄연기.

친정부 인사 문화경제부시장 선임 뒤 건강상 이유 자진 사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강 시장은 국회의원 3선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자신은 극구 부인하고 싶었으나 기대와 다르게 불통·독선·독단이 난무했다는 시민단체의 이례적 혹평이 쏟아졌다. 현직이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인근의 전남도와 대비되며 오차범위 밖 2위로 밀려난 수모를 겪었다. 그동안의 성과가 부정당하고 서운할 수 있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고 여론조사일 뿐이라 치부하려다 냉철하게 돌아볼 계기다.

행정도 정치도 민주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남은 1년을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자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안전한 일상, 넉넉한 경제, 여유로운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야 한다. 정말 작은 실수도 착오도 용납되지 않는다.

호남권 거점 광주시 인구가 21년만에 140만명선이 무너졌다. 청년 유출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당에 겹겹이 악재다.

강 시장은 조만간 해법을 마련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를 데미지 삼아 하나같이 열개를 맞춰야 한다. 첫번째는 당연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공식화된 공공화이다. 험악어진 매듭만 잘 풀어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되는 최고 난제 여서다.

차기 광주시장 도전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들 역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현재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있는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이형석 전 국회의원 등이다.

호남이야 민주당의 텃밭임을 부정할 수 없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들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기 쉬운 유리한 구도다.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예고한 만큼 여당의 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장선에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까지 포함해 민주당 지지율이 40% 중반에 안착한 반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정당으로 기록된 권에 안주해 혁신과 거리가 먼 국민의힘은 20%대가 무너지는 최악의 쇼크 상황이다. 설부르지만 이대로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굳어진다. 해서 민선9기는 이재명 표 정치 철학,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단체장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로 든 경제·민생 회복,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로지 시민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 민선8기 4년차, 강 시장은 자신을 옹위하는 단소리를 멀리쳐야 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행정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감동있는' 진심이면 통한다. 그리고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시민들도 바란다. '성공한 시장'이 되길.

社說

내주부터 광주·전남 소비쿠폰 지급...스미싱도 주의

당장 다음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는 광주의 경우 일반 시민은 18만명,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명,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명이다. 9월 중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씩 추가된다.

사용처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되며, 11월 말 기한 종료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무원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전남 TF를 구성해 민원 대응 보조인력 확보·콜센터 운영 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소비쿠폰이 고물가 속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는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때마침 기세를 부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카드사들도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공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을 보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뜬다면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 온 번호로는 전화를 걸어선 안 된다.

경기 침체와 함께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국가 차원의 특단 처방이다.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용처를 손쉽게 파악하고 알차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안내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하겠다.

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공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을 보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뜬다면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 온 번호로는 전화를 걸어선 안 된다.

경기 침체와 함께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국가 차원의 특단 처방이다.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용처를 손쉽게 파악하고 알차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안내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하겠다.

맞 올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조기 성과 기대

벤처창업 성공시대를 견인할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맞을 올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다. 김영록 지사는 입교식에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한다"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벤처창업 3·3·3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을 유인한다. 3·3·3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벤처창업 3천개사, 스케일업 300개사, 밸류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정했다.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 분야 대학생·청년의 정착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나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0년부터 2007년 출생자)으로 제한했다. 또 서류 준비에 애로를 겪었던 이들의 요청과 일정상 지원이 어려웠던 다며 문의가 지속해서 이어진 만큼 참여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230명이 지원했고, 모두 133명이 선발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매일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천400만원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1대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16개 대학·출연기관 등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한다.

전남도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미래 첨단분야 유망한 벤처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었는데 조기에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지역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 출발선에 섰다.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실현해야 한다. 전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김영순

전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의 디지털아트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디지털아트는 이미 세계 미술계의 주류로 부상했다. 음악, 영상,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컴퓨터, 태블릿, 인공지능, 프로젝션, 센서, VR/AR,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창작되고 감상되고 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국내 유수의 IT 대기업들도 앞다퉀 아트&테크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 단위로 디지털아트를 매개로 한 페스티벌과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떠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AI 허브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광주에는 뚜렷한 디지털아트 정책과 전략, 실행 플랫폼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광주는 이제 디지털아트를 문화 자산으로 전략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산업의 미래를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광주 디지털아트페어' 신설을 제안

G-디지털 아트, AI와 키네틱

한다. 2011년 시작된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202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아트페어는 그 빈자리를 메우고, 광주를 아시아 디지털아트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트페어 기간 중 체험형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해도 좋다. 예컨대, 삼성 갤럭시가 후원한 호주 시드니의 '비비드 페스티벌'처럼 'Digital Playground' (디지털 놀이터)를 조성한다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환상적인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제시하는 미래의 상상력이 도시 전반에 퍼질 수 있다. 기술과 예술의 협력이 전문가 수준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도모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둘째, 'GMAP 어워드' 제정이 필요하다. LG의 OLED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LG GMAP 어워드'를 신설해 세계적 작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 뉴욕 구겐하임과 LG가 함께 운영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OLED 패널 생산의 최강자인 LG와 세계적인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의 협업 자체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세 번째 수상자를 냈으며 스테파니 디킨스(Stephanie Dinkins, 23년) 슈 리 칭(Shu Lea Cheang, 24년) 김아영(25년) 등이 수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김아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미래상의 첫 번째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LG GMAP 어워드'도 상급과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아트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광주에 LG의 참여를 유도하고, AI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시도다.

셋째, '키네틱아트 타운' 조성을 제안한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광주에도 예술적 개성과 공간적 매력을 갖춘 지역을 조성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 조나단 보로프스키의 '해머링 맨'처럼, 대형 키네틱 조형물을 도시 곳곳에 배치하면 시각적 랜드마크가 되며 도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움직이거나, 관객이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키네틱 작품들이 세워진다면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도시 주요 지역의 풀리(조형 건축물) 또한 키네틱 아트로 구현된다면, 광주는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광주는 글로벌 디지털 아트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를 문화 자산으로 전략화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광주 디지털아트페어', 'LG GMAP 어워드', '키네틱 타운'은 AI 중심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 동시에 문화·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 브랜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독자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번 지원책은 신청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범행 기회로 삼는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소비쿠폰 신청 일정이 성큼 다가온 만큼,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사실 스미싱 사기는 해외 IP주소를 쓰는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경우가 많다 보니 검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일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공식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우려되는 것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 동시에 관련된 스미싱 범죄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들도 홀로 계신 부모님이 소비쿠폰으로 인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연락해 주의 사항을 알려줬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가을 마중

서복현

잠시마실 갔다올게 멀리 떠나지않아 저녁해가 눈부실 때 돌아올게 귀뚜라미 데리고



*시작노트
있었다가 없어지고
몽했다가 흩어지는 하얀 구름이다
집을 비우고 처마 위로 구름 한 점이 마실 나간다
홀로 어디를 가는 중인가보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조용히 사뿐사뿐 하늘 위로 등등 떠나간다
저녁해는 부실 때 돌아온다고 한다
아마 가을 불러오는 중인가 보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려고.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